

##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 연구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

정경란(한국학중앙연구원)

### 차 례

1. 서론
2.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안) 제시
3. 결론

### 1. 서론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이 완간되면서 지역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95년에는 ‘假稱『民國餘地勝覽』 編纂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어[1] 지역문화자료의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 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가 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에는 강화군, 성남시, 문경시, 장성군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고[2], 동년 11월에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표준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분석·검토 워크숍’이 개최되어[3] 지역문화의 분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으며, 전국의 23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발전상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지역문화대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2013년 현재 총 67개 시군구의 사업이 진행되어, 36개 지역 사업은 이미 완료하여 서비스 중이고, 31개 지역을 추진 중에 있다.(완료지역 : 성남시, 청주시, 강릉시, 진주시, 진도군, 남원시, 제주시, 울릉군, 음성군, 용인시, 공주시, 울진군, 여주시, 충주시, 부천시, 양산시, 논산시, 창원시, 철곡군, 안동시, 구미시, 김제시, 안산시, 진천군, 고창군, 광명시, 구로구, 고령군,

김천시, 제천시, 하동군, 서산시, 양주시, 서귀포시, 북한향산군, 개성시, 추진중인 지역 : 영암, 부산(16개 구·군), 영천, 인천남구, 도봉구, 의성, 강남구, 포천, 천안, 청도, 화순, 창원통합지역(마산, 창원, 진해), 군산, 진안, 순창 해외 중국동북지역 등)

지역문화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 추진중인 2005년에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연구자연찬회’를 통하여 ‘삶의 터전 : 자연과 지리’, ‘삶의 자취 : 문화유산’의 두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체계 시안이 제시되었고[4], 2007년에는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분류체계의 접합 방안』에서 성남 및 청주의 사례를 가지고 분류체계의 표준안이 제시되었다[5]. 또한 2008년에는 현대의 시군지 내용 및 목차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군지의 한 모델로서의 디지털시군지의 범형(範型)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제시하여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6]

이처럼 지역문화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실제 각 지역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만드는 데에는 필요한 범용적인 표준분류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기 완료된 19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성남, 청주, 강릉, 진도, 진주, 남원, 제주시, 울릉, 용인, 음성, 공주, 울진, 여수, 부천, 충주, 논산, 양산, 창원, 철곡편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항목을 분류하여 지역문화의 범용적인 표준분류체계 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가 마련되면 향후 국내외에서 지역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분류하는데 수월할 것이고, 현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지역별로만 서비스되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통합 사이트가 구축될 때 표준분

류체계에 의한 전국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콘텐츠의 인터넷주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콘텐츠

연구대상 지역	인터넷 주소
성남	http://seongnam.grandculture.net
청주	http://cheongju.grandculture.net
강릉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진도	http://jindo.grandculture.net
진주	http://jinju.grandculture.net
남원	http://namwon.grandculture.net
제주시	http://jeju.grandculture.net
울릉	http://ulleung.grandculture.net
용인	http://yongin.grandculture.net
음성	http://eumseong.grandculture.net
공주	http://gongju.grandculture.net
울진	http://uljin.grandculture.net
여수	http://yeosu.grandculture.net
부천	http://bucheon.grandculture.net
충주	http://chungju.grandculture.net
논산	http://nonsan.grandculture.net
양산	http://yangsan.grandculture.net
창원	http://changwon.grandculture.net
칠곡	http://chilgok.grandculture.net

## 2.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안) 제시

현재 지역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는 9개의 대분류가 있고, (1. 삶의 터전(지리), 2. 삶의 내력(역사), 3. 삶의 자취(문화유산), 4.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5. 삶의 틀(정치, 경제, 사회), 6. 삶의 내용1(종교), 7. 삶의 내용2(문화와 교육), 8.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9. 삶의 이야기(구비전승, 언어, 문학)) 그 아래 중, 소, 세분류가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현재의 사업방법에서는 각 지역의 대상항목들을 뽑아내고, 그 항목을 대상으로 중, 소, 세분류의 체계를 귀납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추출되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이 생길 수 있었다. 항목을 먼저 추출해 분류체계를 귀납적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이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수록되어야 할 대상이나, 분류체계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연역적으로 전 지역 공통의 표준분류체계를 만

들고, 동시에 지역별 대상항목을 추출하여 귀납적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도되는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 시안은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분류체계를 지역문화대전을 완료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전 지역 범용적인 분류체계가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성남부터 칠곡에 이르는 19개 지역문화대전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모두 분석하고 전 지역 범용의 표준분류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1 삶의 터전(지리)

#### 1) 자연지리

19개 지역에 나타난 분류체계에서는 중분류인 자연지리 아래 소분류의 경우 기후, 지질, 지형·지질, 지형, 지질·지형 등으로 분류체계가 통일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충주, 부천, 창원의 경우는 지질·지형으로, 울진, 공주, 양산, 여수, 논산, 공주, 용인, 음성에서 지형·지질로 분류되었다. 소분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세분류의 경우에도 19개 지역에 43개가 나타나는데, 계곡·골짜기·바위, 고개, 골짜기, 들, 바다·만, 분지, 산, 언덕, 평야, 하구·선상지, 하천, 계곡·폭포, 분지, 산, 습지, 평야, 하천, 호수, 계곡, 고개, 기타, 동굴, 산, 섬, 지하수, 하천, 해안지형, 계곡·폭포, 고개, 동굴·바위, 만, 바다, 바위·대, 분지, 산, 섬, 습지·늪·못, 평야, 폭포, 하천, 하천·호소, 해안지형, 호수 등으로, 이 세분류도 유사한 것은 묶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분류체계(안)으로 소분류는 기후, 지질·지형의 2개로 분류하고, 세분류는 계곡·골짜기, 고개, 산, 평야·들, 하천, 폭포, 호수·못, 섬, 바다·만, 분지, 바위·대, 동굴, 습지·늪, 샘, 하구·선상지, 해안지형의 16개로 분류한다.

#### 2) 인문지리

중분류인 인문지리 아래의 소분류는 현재 관광, 관광·위락시설, 교통, 지명·마을, 행정구역 등으로 중복되고 동일성이 결여된 분류로 되어있으나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관광, 교통, 지명·마을, 행정구역으로 나눈다. 또한 현재의 관광과 관광·위락시설에는 19개의 세분류가 있으나(공원, 기타, 나루·진, 도로, 레조·숙박, 온천, 해수욕장, 휴양시설, 골프장, 공원, 관광농원·휴양림, 선착

장·나루·터미널, 숙박시설, 온천, 위락시설, 전망대, 촬영지, 해수욕장, 휴양림) 이는 7개 세분류(공원, 휴양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온천, 촬영지, 해수욕장)로 통일성있게 정리한다.

소분류 교통 아래의 세분류에는 공항·터미널, 교량, 교량·터널, 기타, 나루·진, 도로, 등대, 선착장·나루·터미널, 운송, 정류장·터미널, 철도, 터널, 터미널, 포구, 포구·항, 포구·항만, 항구, 항만, 해상교통으로 중복 및 유사한 분류가 열거되어있으나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교량, 도로, 등대, 철도, 터널, 포구·항만, 정류장·터미널, 공항, 나루·진, 선착장, 해상교통으로 통일한다. 소분류인 지명·마을의 세분류인 고지명, 논·밭, 동, 독·포구, 마을, 아파트마을, 우물, 자연마을, 지명은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지명, 자연마을, 아파트로 정리한다.

3) 동식물

동식물 분류에서는 동물, 동물상, 식물, 식물상 등 통일되지 못한 분류가 섞여 있었는데,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동물상과 식물상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식물의 세분류에 들어있던 천연기념물을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삶의 자취(문화유산)으로 옮겨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분류안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현재의 세분류는 12개(곤충류, 기타동물, 어류, 조류, 포유류, 어패류, 조류, 목본류, 보호수, 천연기념물, 초본류, 해초류)이나,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8개(곤충류, 어패류, 조류, 포유류, 초본류, 목본류, 보호수, 해초류)로 통일하여 분류한다[표 2].

2.2 삶의 내력(역사)

현재 근현대와 전통시대의 두 분류로 나누고, 근현대에서는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그리고 전통시대에서는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져있다. 이 분류체계는 19개 지역문화대전에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3].

표 2. 삶의 터전(지리)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터전 (지리)	자연지리	기후	계곡·골짜기	
			고개	
		지질·지형	산	
			평야·들	
			하천	
			폭포	
			호수·못	
			섬	
			바다·만	
			분지	
			바위·대	
			동굴	
			습지·늪	
			샘	
			하구·선상지	
	해안지형			
	인문지리	관광	공원	
			휴양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온천	
			촬영지	
			해수욕장	
			교통	교량
				도로
				등대
		철도		
		터널		
		지명·마을	포구·항만	
			정류장·터미널	
			공항	
	나루·진			
	선착장			
	해상교통			
	지명			
	자연마을			
	아파트마을			
	동식물	행정구역	구	
			읍	
			면	
동				
군				
동물상		곤충류		
		어패류		
		조류		
		포유류		
		초본류		
식물상		목본류		
		보호수		
		해초류		
		초본류		
		목본류		

표 3. 삶의 내력(역사)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내력 (역사)	근현대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전통시대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 2.3 삶의 자취(문화유산)

### 1) 유형유산

불교유물, 불구, 토기, 토기·자기 등으로 제각기 분류된 유물의 세분류인 20개의 분류체계(고대유물, 기타, 기타유물, 도자기, 범종, 불교유물, 불구, 불상, 불화, 서화, 석기, 선사유물, 유교유물, 청동기, 철기, 초상화, 충주박물관소장유물, 토기, 토기·자기, 판목·편액, 회화작품)를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8개 분류(선사유물, 고대유물, 불교유물, 유교유물, 토기·자기, 서화, 판목·편액, 생활유물)로 통합, 축소한다[표 4].

현재 유적도 총 62개로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분류하였으나(가마터, 각석문·암각화, 건물, 건물·건물터, 고건축, 고분, 고인돌, 관방유적, 관아건물, 관아지, 귀부석, 근대건축물, 기타, 기타유적, 기타유물, 누정, 누정·누정지, 능묘, 도대불, 도요지, 마애불, 묘소, 방사탑, 방어유적, 봉수, 분묘, 불교건축, 불교유적, 불당, 비, 비석, 사당, 사당·재실, 사당·재실·제단, 사지, 생활유적, 석각, 석등·당간지주, 선동, 선사유적, 성곽, 성혈, 암각, 야철지, 요지, 유교유적, 유물산포지, 장승, 재실, 정려, 제단, 제사유적, 조개터미, 주거지, 진지, 탑·부도, 탑·부도·당간지주, 태실, 태실·태실지, 터, 터널, 화석)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25개(고분, 고인돌, 관방유적, 능묘, 유물산포지, 비, 탑·부도, 사당·재실, 신앙유적, 생활유적, 요지·가마터, 사지, 불당, 석등·당간지주, 관아지·관아건물·관아유적, 누정·누정지, 각석문·암각화, 조개터미, 건물·건물터, 정려, 태실·태실지·태실유적, 근대건축물, 화석, 선돌, 전적지)로 통합, 정리한다.

### 2) 무형유산

제주시에서 공예와 의식·민요로 구분하였으나,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하위분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역별로 무형유산은 그리 많지 않으며, 무형유산이라는 중분류를 두고 개념만 기술되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3) 기록유산

현재 고문서, 고문헌, 고문헌·판목, 고서, 고지도·고문서, 금석문, 기문, 문집, 불교전적, 시문집, 인명록, 일기, 지도·읍지·지리지, 판목·현판, 표류기, 향토지 등 분류가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되어 있다.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고문서, 고지도, 금석문·기문의 소분류를 그

리고 고문헌의 소분류에서는 시문집, 향토지, 인명록, 일기, 표류기, 불교전적의 세 분류를 두는 것으로 한다.

### 4) 문화재

삶의 자취(문화유산)에서 문화재를 중분류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소분류로 새로 개설한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를 세분류로 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세분류로 한다.

앞으로 문화재는 삶의 자취(문화유산)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향후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의 분류 및 문화재관련 분류체계를 더 검토하여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 2.4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 1) 근현대인물

근현대인물 분류가 지역에 따라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교육자, 예술인·의인, 예술인·장인 등으로 제각각 분류되어 있던 것을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문화예술인으로 묶고 현재의 23개의 소분류(경제인, 교육자·종교인, 교육자·종교인·기업인, 교육자·학자, 기업인·자선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의병,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체육인·언론인, 사회운동가, 예술인·교육자, 예술인·의인, 예술인·장인, 정치가, 정치가·행정가, 정치인·경제인, 종교인·사회운동가, 종교인·언론인, 종교인·예인, 학자·교육자, 학자·문학자, 학자·문학자·예술인, 학자·예술가)를 10개(독립운동가·의병, 정치가·행정가, 기업인·경제인, 교육자·학자,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사회운동가, 자선가, 언론인)로 통합, 축소한다.

### 2) 성씨·세거지

지역에 따라 성씨 또는 성씨·세거지로 각각 중분류하여 사용하던 것을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성씨·세거지로 통합하였다.[표 5]

### 3) 전통시대인물

현재의 소분류 22개(귀족·호족, 기인, 문무관인, 문무관인·종친, 문무관인·학자, 민간인, 민간주도자, 사권주모자·연루자, 선비·문인, 선비·학자, 설화인물, 열

녀, 예인·명인, 예인·명인·기인, 왕·귀족, 왕족·호족, 외국인, 유배인, 의병, 효자·열녀, 효자·열녀·의인, 효자·열녀·충노)를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12개(귀족·호족, 문무관인, 선비·학자, 사건주모자·연루자, 예인·명인·기인, 효자·열녀·의인, 의병, 왕·왕족, 유배인, 외국인, 입학조, 민간인)로 통합, 정리한다.

표 4. 삶의 자취(문화유산)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자취 (문화유산)	유형유산	유물	선사유물	
			고대유물	
			불교유물	
			유교유물	
			토기·자기	
			서화	
			판목·판액	
			생활유물	
			고분	
			고인돌	
			관방유적	
			능묘	
		유물산포지		
		비		
		탑·부도		
		사당·재실		
		신앙유적		
		생활유적		
		요지·가마터		
		사지		
		불당		
		석등·당간지주		
		관아지·관아건물·관아유적		
		누정·누정지		
		각석문·암각화		
		조개터미		
		건물·건물터		
		정려		
		태실·태실지·태실유적		
		근현대건축물		
		화석		
		선돌		
		전적지		
	무형유산			
		기록유산	고문서	고지도
				금석문·기문
	고문헌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문집
				향토지
				인명록
		일기		
		표류기		
		불교전적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표 5.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주체 (성씨와 인물)	근현대인물	독립운동가·의병	
		정치가·행정가	
		기업인·경제인	
		교육자·학자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사회운동가	
		자선가	
		언론인	
	성씨·세거지	성씨	
		집성촌	
		중친회	
		귀족·호족	
	전통시대인물	문무관인	
		선비·학자	
		사건주모자·연루자	
		예인·명인·기인	
		효자·열녀·의인	
		의병	
		왕·왕족	
		유배인	
		외국인	
		입향조	
민간인			

### 2.5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1) 경제·산업

지역에 따라 소분류와 세분류의 개념이 뒤섞여있다. 산업시설의 경우 논산, 충주, 부천, 창원에서는 중분류에, 양산은 세분류에 있으며, 창원에서는 아예 산업시설 하위분류에 산업시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분류에서조차 기업·산업지원기관, 산업시설, 산업시설·시장, 시장·산업시설 등 지역마다 제각기 분류되어 통일되지 못한 분류체계가 보인다. 경제·산업분류 아래의 경제단체·기업, 공공기관, 관공서, 기업, 기업·산업지원기관, 사회·복지, 산업개황, 산업시설, 산업시설·시장, 산업전시회, 산업지원기관, 시장·산업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역관리사업, 친환경농업, 특산물의 16개 소분류를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경제단체, 기업체, 특산물, 산업개황, 산업시설의 5개로 축소, 통합한다.

#### 2) 과학기술

현재 연구소, 연구소 지원시설, 전통기술, 지원기관, 시설 등으로 제각기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연구소·시설, 전통기술의 두가지로 분류한다.

#### 3) 사회복지

현재의 보건의료, 사회단체 사회단체·시설, 사회시설,

사회운동, 사회운동·사회사건, 사회운동·시민운동, 사회운동·시민활동, 지역개발사업의 9개 소분류는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사회단체, 보건의료, 사회시설, 사회운동의 4개로 통일한다.

4) 정치·행정

현재 공공기관, 관공서, 지방자치, 지방자치·행정, 지역관리사업, 지역관리시설, 지역관리행정의 7개 유사 소분류가 있으며, 이를 5개로 분류하고,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공공기관하위에 경찰서, 기타, 소방서, 우체국, 주민자치센터는 세분류에서 없애고, 공공기관에서 분류없이 서술하도록 한다[표 6].

표 6. 삶의 틀(정치·경제·사회)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틀 (정치·경제·사회)	경제·산업	경제단체	
		기업체	
		특산물	
		산업개발	
		산업시설	시장 저수지 산업단지 댐·저수지 광산
	과학기술	연구소·시설	
		전통기술	
		사회단체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시설	
		사회운동	
		공공기관	
	정치·행정	관공서	
		지방자치	
		지역관리사업	
		지역관리시설	

2.6 삶의 내용1(종교)

현재 종교단체가 주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남원 84개, 용인 90개). 개신교 소분류에 교회, 교회·개신교단체, 종파로 나누어져있으나, 교회이외에는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하위분류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한다[표 7]. 천주교의 경우도 성당, 수도회·수녀회로 나누어져있으나, 지역에 따라 수도회·수녀회는 많지 않으므로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천주교 아래 세분류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불교의 소분류에 불교단체, 사찰·불교단체, 종파·제례·행사로 나누어져있던 것을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불교분류 하나로 통합, 축소 한다.

표 7. 삶의 내용1(종교)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내용1 (종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종교	
		유교	

2.7 삶의 내용2(문화와 교육)

1) 교육

현재 22개의 소분류가 되어 있으나(고등학교, 교육관·수련장, 교육기관, 근대교육, 근대교육기관, 대학교, 도서관·박물관, 도서관·박물관·교육시설, 연구소·장학회, 연구소·지원기관·장학회, 연구소·학술단체, 유아·특수·평생교육, 유아·특수·평생교육기관, 유아·평생·특수교육, 중학교, 지원기관·도서관, 박물관, 지원기관·시설, 지원기관·연구단체, 지원기관·연구소, 지원기관·장학재단, 지원기관·학술단체, 초등학교)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근대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박물관, 유아·특수·평생교육, 연구단체, 지원기관·시설의 9개로 유사한 분류를 축소, 통합한다.

2) 문화예술

문화와 예술은 문화예술로 합치고, 언론출판 또는 언론·출판은 언론·출판으로 통일한다[표 8].

표 8. 삶의 내용2(문화와 교육)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내용2 (문화와 교육)	교육	근대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박물관	
		유아·특수·평생교육	
		연구단체	
	문화예술	문화예술개발	
		문화예술단체	
		문화시설·기념물	
		지역축제·행사	
	언론·출판	예술작품·공연·전시	
		신문	
		방송	
		출판사·출판물	
	체육	언론단체	
		체육단체	
		체육시설	
			체육행사

## 2.8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 1) 민속

현재 생업도구, 생업기술·도구, 생업도구·기술, 생업도구·생활조직 등 유사한 제목의 소분류가 많으며, 평생의례는 소분류 또는 세분류에도 나오고 있다[표 9]. 또한 공주에서는 서낭당으로, 울진에서는 성황당[7]으로 분류하였는데, 항목은 고유명사라서 명칭 그대로 수록해야한다면, 분류개념은 국어사전적 원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 모델(안)에서는 민속의 중분류아래 세시풍속·평생의례, 민간신앙, 생업기술·도구, 민속놀이, 생활조직의 5개로 소분류로 한다. 또한 민간신앙과 민속놀이의 소분류에는 무속신앙과 제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없애고,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세시풍속·평생의례, 민간신앙, 생업기술·도구, 민속놀이, 생활조직, 민간의료로 소분류는 확대하고, 세분류는 좀더 조직화한다. 즉 현재 민속의 세분류가 37개(가정신앙, 가정신앙, 기우제, 기타, 동고사·당고사·탑고사, 마을신앙, 무속신앙, 민간신앙유적, 민간의료·액막이, 산신제, 거낭당, 서낭제, 성황당, 성황목, 수살제·샘고사, 신, 신당, 제례, 기타, 무속신앙, 농기구, 생업기술, 생활용구, 어구, 농업관련도구·기술, 어업 관련 도구·기술, 일상생활용구, 세시놀이, 세시풍속, 평생의례, 상례, 제례, 혼례)가 있으나,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11개(세시풍속, 평생의례, 가정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민간신앙유적, 농기구, 어구, 생활용구, 사냥독, 생업기술)로 유사한 분야는 묶고 축소, 통일한다.

표 9.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방식 (생활과 민속)	민속	세시풍속·평생의례	세시풍속
			평생의례
		민간신앙	가정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민간신앙유적
		생업기술·도구	농기구
			어구
			생활용구
			사냥도구
		민속놀이	생업기술
	민속놀이		
	생활조직		
	민간의료		
	생활	식생활	명절음식
			향토음식
			음식절
			의례음식
		의생활	의복
			수식·장신구
		주생활	주거건축
농정건축			
주거문화			

### 2) 생활

식생활에서는 표준분류체계(안)에 음식점을 신규로 포함시켰고, 의생활에서는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의복, 수식·장신구 같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였다. 주생활은 현재 전통가옥만 분류가 되어 있으나, 주생활이 전통가옥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주거건축, 농정건축, 주거문화로 넓게 분류한다.

## 2.9 삶의 이야기(구비전승, 언어, 문학)

지역에 따라 구비전승과 어문학, 또는 언어와 문학으로 대분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표 10]. 그러므로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구비전승, 언어, 문학으로 통일한다. 구비전승의 소분류로 무가, 민요, 민요·무가, 설화로 분류된 것을 중복된 민요를 탈락시키고,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설화와 민요·무가로만 분류하였으며, 『디지털제주문화대전』에만 민요의 소분류에 들어있던 추자도민요를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제외한다. 추자도민요는 분류개념이라기 보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반항목으로 돌리고 세분류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언어분류에서는 각 지역별로 10개 안팎의 항목이 나오므로 중분류아래 소분류를 두지 않는다. 또한 현재 문학 중분류에는 동인지, 문예지, 시집 등 유사한 개념이 많고, 문학단체, 문학작품이 통일성이 없이 열거되어있다. 표준분류체계(안)에서는 문학단체, 문예지, 문학작품, 문학행사·문학상으로 통일한다.

표 10. 삶의 이야기(구비전승, 언어, 문학)의 표준분류체계(안)

표준분류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삶의 이야기 (구비전승, 언어, 문학)	구비전승	설화	
			민요·무가
		유희요	
		의식요	
		내방요	
		창민요	
	동요		
	언어		
		문학	문학단체
	문예지		
문학작품			
문학행사·문학상			

## 3. 결론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가 완성되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에서의 지역문화 콘텐츠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230개 시군 중 67개 지역을 추진하여 전지역의 30퍼센트가 넘는 정도로 사업이 추진,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시스템에 대비하여 지역문화의 표준분류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표준분류체계(안)은 초안일 뿐으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지역의 특수성과 전국의 보편성이 조화롭게 수록될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단위, 광역시 단위의 분류체계가 더 완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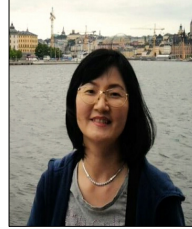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1] 李啓鶴·俞光浩·朴丙鍊·朴東俊, 『假稱「民國輿地勝覽」編纂을 위한 研究-分類體系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전국문화원연합회, 2001.
- [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표준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분석·검토 워크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4] 권영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항목 구성체계, 『2005년 한국향토문화연구자 연찬회』, 한국학중앙연구원·(사)한국향토사연구진국협의회, 2005, 7-30쪽.
- [5] 권영옥·김백희,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구성 체계의 접합 방안」, 인문콘텐츠 제9호, 인문콘텐츠학회, 2007, 11-37쪽.
- [6] 김현·주영하·정치영·임동주·정경란·김백희·임준근·곽병훈, 『지역문화와 디지털 콘텐츠』, 북코리아, 2008.
- [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성황당은 서낭당의 원말입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 저자 소개

##### ● 정 경 란(Kyung Rhan Chung)

정희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악과(학사)
- 1998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석사)
- 2011년 8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과(문학박사)
- 1989년 10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지역문화 및 전통식품 콘텐츠개발, 고려 및 조선시대 음악학